

## [열려라 도서관\_시즌2] 공통7. 브레인스토밍과 마인드맵

### 1. 브레인스토밍

브레인스토밍은 미국의 알렉스 오스본(ALEX OSBORN)이 창안해낸 것으로서, 브레인(Brain)과 스토밍(Storming)이 합쳐진 말로 아이디어를 폭풍처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도와주는 생각 기법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생각의 나열을 통해 내가 필요한 정보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요. 생각이 폭풍과 같이 일어난다면 세상 그 무엇도 어려운 것이 없을 테지요.

(1) 브레인스토밍을 할 때 잊지 말아야 할 법칙

- 많은 아이디어와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에 절대 비판 하지 않는다. 자유로운 생각, 엉뚱한 생각을 마음껏 낼 수 있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아이디어는 기발함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니까요.
  -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아이디어라 할지라도 양껏 쏟아 낸다.
- 아이디어와 정보의 수는 많을수록 좋다는 것. 다양한 정보의 나열이 내가 필요한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는 자원이 되니까요. 그러니 이때 아이디어에 대한 판단은 절대 하지 않기로 한 것. 다시 한 번 확인합니다.
- 아이디어를 기록해야 한다.

쏟아만 놓고 기록하지 않는다면 아이디어는 연기가 되어 사라져 버릴지도 모르니 잊지 말고 이렇게 기록한 아이디어가 좋은 정보, 내가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도 브레인스토밍을 하는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렇게 진행한다면 브레인스토밍은 정말 재미있는 게임이 될 수도 있다는 것 잊지 마세요.

(2) 브레인스토밍을 더 잘 할 수 있는 TIP

첫째, 과제를 명확히 정의할 것.

과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아이디어가 쏟아지는 거예요. 친구들은 먹는 밤을 이야기 할 때 나는 깜깜한 밤을 이야기하면 안되겠죠?

둘째, 리더 정하기.

브레인스토밍에 참가하는 우리 친구들 중에서 리더를 정하세요. 리더는 친구들이 과제를 명확히 이해하도록 정리해 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마구마구 나올 수 있도록 격려하고 용기를 줄 거예요.

셋째, 모든 아이디어를 기록하고 정리하여 시각화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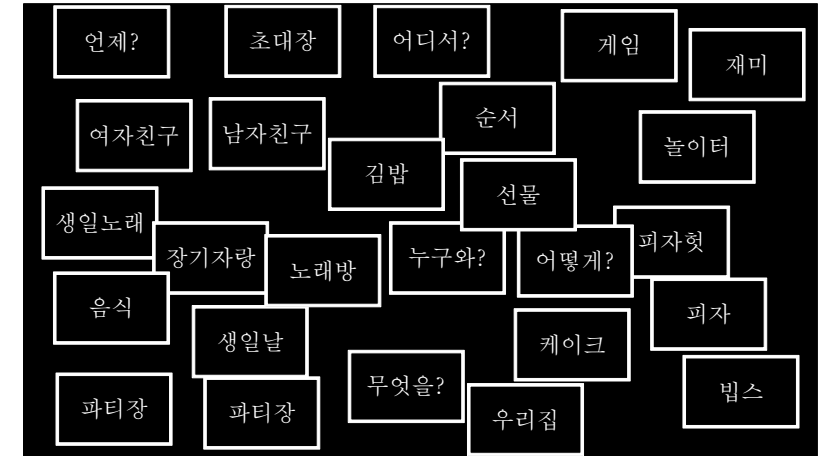
좋은 아이디어 혹은 황당한 아이디어라도 기록하지 않으면 브레인스토밍의 의미가 없어요. 친구들의 기발한 아이디어를 모아 정리하고 눈에 잘 보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아이디어를 더 하거나 빼서 우리의 요구에 맞는 정보를 만들어 낼 수 있어야 브레인스토밍이니까요.

마지막, 즐겁게 할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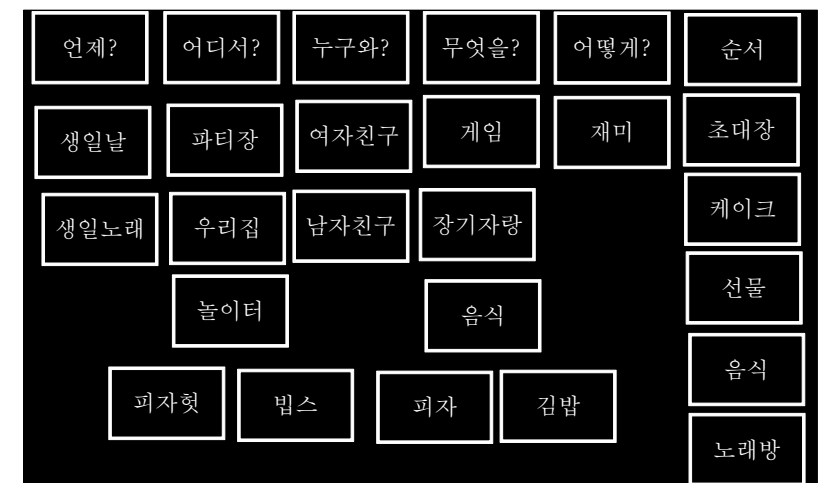
이중에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즐겁게 즐기면서 하는 것입니다. 즐거워야 생각도 폭풍처럼 쏟아져 나오거든요. 진정 즐길 줄 알아야 챔피언입니다.

그럼, 실제로 브레인스토밍을 우리 생활에 어떻게 쓸 수 있는지 알아볼까요?

나의 생일이 곧 다가옵니다. 우리 반 친구들을 초대해 생일파티를 열려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할 것은 많고 무엇보다 준비해야 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생일파티를 위한 생각들을 쏟아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브레인스토밍입니다. 방법은 생일파티준비하면 생각나는 것을 포스트잇이나 종이에 마구 마구 적어보세요.



앞서 말한 것처럼 양껏 쏟아낸 생각들을 정리해 보면, 생일파티준비에 필요한 것을 찾아 낼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해 보면 다음과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정리되었다면 생일파티준비를 할 때 어렵지 않을 거예요. 이처럼 브레인스토밍은 내가 필요한 정보가 무엇인지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창의적인 생각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찾아낼 때에도 유용하게 쓸 수 있는 생각기법이지요. 배운 것은 꼭 활용해 봅시다.

## 2. 마인드맵

영국의 토니 부잔에 의해 개발된 마인드 맵(Mind map)은 생각을 마음속에 지도를 그리듯이 줄거리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으로, '생각지도'라고도 합니다. 주제를 두고 떠오르는 생각들을 나뭇가지를 연결하듯 정리해 나감으로써 생각을 시각화하고 확장해 나가는 데 있어 좋은 방법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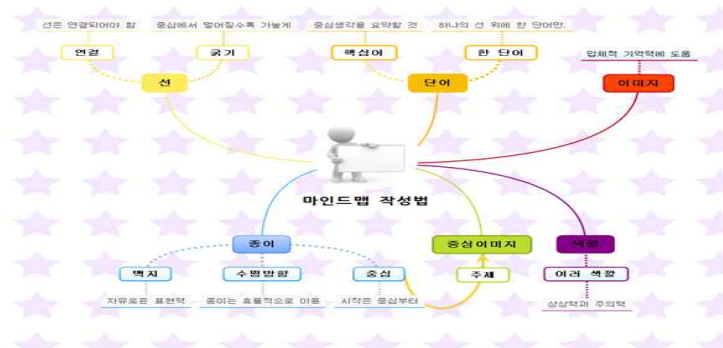
### (1)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활용하기

정보를 찾아내고 그 정보를 창의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브레인스토밍과 함께 사용하면 좋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습니다. 브레인스토밍으로 다양한 정보를 나열한 다음 그것을 분류, 정리, 통합하고 확장시키는 것이 바로 마인드맵이니까요. 커다란 종이와 펜, 또는 알마인드와 같은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 아이디어나 생각의 구조를 볼 수 있고 각 정보들과의 연결 관계가 한 눈에 드러남으로서 문제를 이해하고 체계적으로 정보요구를 분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럼, 누구나 할 수 있다는 마인드맵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 (2) 생각지도 그리기

우선 마인드맵을 효과적으로 작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 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인드맵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우선, 중심 주제를 정합니다. 찾아야 할 정보의 범위 내에서 무엇이 중심인지, 즉 어떤 것이 주제가 되는지 먼저 찾아봅니다. 그리고 중심으로부터 중요한 것, 덜 중요한 것, 일반적인 것, 세부적인 것 등의 순서로 가지를 연결합니다. 나무에서 줄기로부터 직접 뻗어나간 굵은 주가지가 있고, 주가지로부터 다시 여러 개의 가지가 자라나서 무성한 생각의 지도, 생각나무가 완성됩니다.



마인드맵 작성하는 법을 마인드맵으로 표현해 봤어요. 우선 종이는 백지로 수평방향으로 준비하고 중심이미지는 가운데 주제중심을 잡아줍니다. 다양한 색깔을 활용해 각각의 주제들이 눈에 잘 띄도록 하구요.. 이미지는 입체적으로 활용하고 연결선은 굵거나 색을 다양하게, 단어는 핵심어로 작성하면 됩니다.

마인드맵을 하는 방법에 대한 이해가 되었다면 시작해볼까요?

커다란 종이와 색색의 펜을 준비하고 시작하세요. 아니면 알마인드와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해도 쉽게 마인드맵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친구들이 <눈물바다>와 <방귀쟁이 며느리>를 읽고 직접 그린 마인드맵인데요. 책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필요한 정보를 구조적으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